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회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8일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항생제 적정사용률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종합점수를 90% 이상 받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1등급 중에서도 기관종합결과가 97% 이상 기관에만 수여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본원은 2010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채석래 병원장은 "지속적인 임상 질 지표 관리활동과 교육활동 등으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에 대한 개선 노력과 수술부위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2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 아태지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한국대표이사 지명 (Appointed council member of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 APHN, 이하:아태 호완학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 2명 중 한 명으로 지명되어 2013년 13차 의회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참여하게 됐다.

아태 호완학회는 2001년에 창립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종사자들의 학술모임으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홍콩,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란,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모두 33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2013년 10월 현재 회원 수는 1,347명에 이른다.

서 교수가 아태 호완학회의 연구 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활발한 국제 연구에 기여하여 대한민국과 동국대학교병원의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한편 APHN은 격년으로 학술대회(Asia Pacific Hospice Conference, APHC)를 열고 있으며 2015년 대만에서 11차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03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국제정형외과학회 대표 멤버로 선출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8차 국제정형외과연구학회 심포지엄에서 '줄기세포로부터 연골 형성'에 관한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한 국제정형외과연구학회(International Combined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결성식에서는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표 멤버로 선출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04 동국대학교병원, 2013 환자안전의 날 개최

동국대학교병원은 환자안전의 중요성과 병원 내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2013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의 전 교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째 날, 법무법인 로엠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동필 변호사를 초청하여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의 주제로 특강을 시행하고 포스터 전시를 하여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켰다. 다음날에는 '환자안전 현장 선포식'과 '환자안전 및 고객 만족 부문 개선 우수사례' 발표,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열고 환자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높였다.



이날, 도전 골든벨에서는 김형구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가 최후의 1인으로 남아 영광의 골든벨을 울려 3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채석래 병원장은 "2013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통하여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철저한 환자안전관리 실천으로 더욱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PAPER

수심고 다리 아래 탑을 쌓는 즐거운 산사여행 '백담사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재무회계팀 정태민

도로를 따라 산사로 가는 길은 오색단풍이 울긋불긋 가을옷을 입고 너도나도 자랑을 하니 눈이 즐거웠다. 입구에서 마을버스 기사님의 신기(神技)에 가까운 곡예운전에 다시금 감탄하며 도착한 그곳, 백담사.

내설악의 웅장함과 흐르는 계곡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법고(法鼓)의 북소리마저 설악의 풍경을 닮아 있었다. 이곳에서 출가한 만해(卍海) 선생이 가을밤 별빛이 쏟아지는 은하수를 보며 도를 닦아, 그렇게 명시(名詩)들을 탄생시켰나 보다.

수심고 강가에서 탑 쌓기 수행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이듬해 물이 차면 휩쓸려 버릴 것을 알면서도 사람 키만큼 열심히 쌓는 우리를 보며 만해 선생의 시 구절이 떠오른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만해 한용운 인연설2 중에서-

우리 인생도 강가의 탑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찰나임에 슬퍼 않고 덕을 쌓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곡차 한 잔에 발그레한 나를 보며 김명숙 선생님이 말한다, 단청불사(丹青佛事)- 라고.

알 리 미

미니체육대회 결과

족 구

- 1위 : 위너(한방병원)
- 2위 : 개발들 시즌 2 (시설관리팀, 방재실)
- 3위 : 빠운스(재활의학과)

탁 구

- 1위 : 후레쉬(일산행정처)
- 2위 : 이기자(병동간호팀)
- 3위 : 핑클(병리/심혈관/호흡기/진검)

